제2737호 2024년 10월 27일(나해) (녹) 연중 제30주일

숲정이

JEONJU DIOCESE SUNDAY BULLETIN

발행인 김선태 주교 | **주소** 55036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100
편집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 **대표전화** (063)230-1004 | **팩스** (063)230-1175
홈페이지 http://jcatholic.or.kr | E-mail catholic114@hanmail.net

교구장 사목교서 |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5,12)

사진 | 손영익 비오(가톨릭사진가회)

① 박성환 신부(주임) ② 김창기(사목회장) ③ 이정호(사무장) 外 사목회원

입 당 송 _ 시편 105(104),3-4

주님을 찾는 마음은 기뻐하여라. 주님과 그 권능을 구하여라. 언제나 그 얼굴을 찾아라. <대영광송>

제1독서 _ 예레 31,7-9

화 답 송 _ 시편 126(125),1-2ㄱㄴ.2ㄷㄹ-3.4-5.6(◎ 3 참조)

◎ 주님이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

○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 주님, 저희의 귀양살이, 네겝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

제2독서 _ 히브 5,1-6

복음환호송 _ 2티모 1,10 참조

◎ 알렐루야. ○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음을 없애시고 복음으로 생명을 환히 보여 주셨네. ◎ 알렐루야.

복 음 _ 마르 10,46ㄴ-52

영성체송 _ 시편 20(19),6 참조

당신의 구원에 우리가 환호하며, 하느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리이다.

주보 <숲정이>는 전주교구의 역사이고 소식이며 선교입니다. 성당에 오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해주세요.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박상운 토마스 신부
(안식년)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티매오의 아들 바르티매오라는 눈먼 거지는 예수님을 향해 외칩니다. 어둠 가운데 머물던 그에게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절박함으로 마지막 희망을 붙든 채, 군중 사이에 계시는 예수님을 향해 힘껏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으며 예수님과 그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들의 방해에도 그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너라.” 하십니다. 다른 이들이 귀 막고 입 막았던 그 소리를 주님께서는 들어주십니다. 누구도 귀 기울이거나 말 걸지 않았던 눈먼 거지에게 주님께서는 길을 내어주십니다.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난 티매오의 아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느냐?”

“스승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과 바르티매오 사이에는 긴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눈먼 이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보았기에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둠 속에 앉아 있는 백성(마태 4,16)에게 세상의 빛(요한 9,5)이 되어 주십니다. 울음소리와 애끊는 통곡을 하며(마태 2,18) 고통과 좌절 가운데 아파하는 이들의 부르짖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만나주십니다. 십자가의 길에서마저 예수님 때문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여자들을(루카 23,27) 위로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길은 곧 십자가를 향한 길입니다. 눈먼 이가 눈을 뜨고 보게 된 것은, 지상에서의 영광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이며 스승이신 분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길가에 앉아 구걸하며 지내던 티매오의 아들 바르티매오라는 눈먼 거지가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보게 된 것은 그분의 가장 큰 영광입니다. 자비로우신 주님께서는 세상을 보는 눈만이 아니라, 하느님을 뵐 수 있는 눈을 뜨도록 해주셨습니다. 나의 눈을 뜨고 본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나라들이 적대감과 불화로 전쟁 중에 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전쟁으로 인해 어둠 가운데 고통받고 있습니다. 교황님께서는 전쟁으로 들끓고 있는 이 세상에 평화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호소하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루카 18,1)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오늘날에도 평화를 위한 힘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해 줍니다. 우리도 바르티매오처럼 외쳤으면 합니다. 우리가 다시 보아야 할 전쟁이 없는 평화의 세상을 청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외쳐야 합니다.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BEING과 DOING 사이, 존재의 상대화(相對化) 2

김정민 라자로 신부
(아중성당)

우리에게 비교 평가는 매우 익숙한 행동이다. 너무도 익숙하여 비교하고 평가한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지 잊고 산다. 그런 결과 우리 자신은 물론 타인, 사랑하는 이, 자녀 등 소중한 사람들까지도 상대화(相對化)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인간은 상대화해서는 안 되는 절대적 존재다. 인간이 절대적 존재라고 해서 하느님의 절대성에 견주는 절대성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자기만의 유일성(하느님을 닮은 모습)을 지닌 개별자로서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존재라는 점이다.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 심부름을 잘하는 아이와 말 안 듣는 아이, 착한 아이와 나쁜 아이 등 이러한 평가에 쉽게 노출되다 보니 당연한 것으로 익숙해진다. 이러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점차 자신을 상대화하거나 타인을 상대화하는 일에 아무렇지도 않게 된다. 자신과 타인을 비교 평가한 그 위에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니! 그들은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를 배우기도 전에 비교당하고 평가당한다. 이것은 존재에 대한 폭력이다. 이러한 폭력으로 인하여 우리의 존재는 인생 시작 전부터 뇌사상태에 빠진다.

뇌사상태의 존재가 자유 의지로 선택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자유 뒤에는 책임이 따르고, 권리 뒤에는 의무가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 자유만 누리고 권리만 주장할 뿐 대부분의 사람이 성장을 멈춘 아이처럼 미성숙한 상태로 성인기를 맞는다. 이들은 자기가 얼마나 유일한 존재인지, 다른 자연 대상과는 달리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를 배우기 전에 서로 비교하고 평가당하는 경험 속에서 존재에 대한 방어 감각만 잔뜩 끌어올린다.

타인의 눈치를 보는데 예민한 감각을 소유하고,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불편해하고 불안해하며 심지어는 두려워하기도 하여 우울, 불안, 대인기피라는 증상까지도 만들어낸다. 억지 부리기, 툭하면 성질내기, 작은 일에도 억울하고, 폭력적 언어사용 등 마치 초등학교 2, 3학년 생이 된 아이가 막무가내로 생떼를 부리는 모습과 흡사하다.

유독 심해지는 사람 사이의 갈등과 리더의 미성숙함으로 인한 혼란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야 함을 제안하고 싶다. 우리 사회가 바벨탑처럼 쌓아 올린 무차별적 비교 평가의 문화와 존재에 대한 왜곡된 태도가 빚어낸 죄악상이다. 방어 감각만 각성된 사람들 사이에서 평화란 이룰 수 없는 꿈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이 사회를 형성하고 살아가는 한 비교 평가를 피할 길은 없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비교 평가는 행위나 능력에 대한 비교 평가지 존재에 대한 비교 평가가 아니라는 점이다. 사람은 뛰어난 행위를 할 수도 있고 저열한 행위를 할 수도 있다. 어떤 면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무력함을 보일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여 그것으로 사람의 존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노동력과 자본이 깊게 결합한 사회다 보니 능력 있는 사람이 경제력을 획득한 결과로 높이 평가되어 대단한 사람처럼 보일 뿐이다.

이는 단순한 착시현상일까? 아니면 현대판 우상숭배 중 하나일까?

첫 순교자 기념성당 윤지헌성당 새 성전 봉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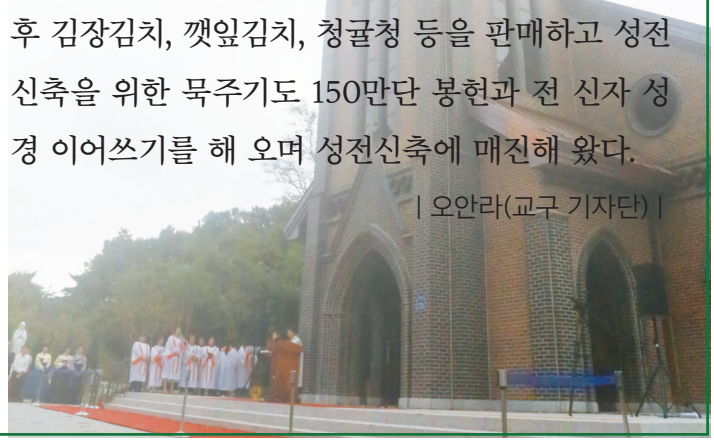
전주교구 윤지헌성당(舊미룡동성당, 주임=이정현 신부)은 10월 19일(토) 오전 10시 군산시 미제길 72 현지에서 교구장 김선태 주교 주례로 새 성전 봉헌식을 거행했다. 2003년 나운동성당과 옥봉성당으로부터 분리되어 설립된 舊미룡동성당은 2021년 12월 첫 순교자 기념성당으로 지정되었고 2022년 10월 기공 축복식을 거행한 후 1년 8개월의 공사 기간을 거쳐 윤지헌성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 성전을 봉헌하게 되었다. 새 성전은 대지면적 2928㎡부지에 성당 514.35㎡와 교육관 590.40㎡ 두 동이 들어서 있다.

김 주교는 미사강론에서 "성전건립의 초석을 마련해 준 김경순(안나) 어르신과 가족분들, 기도와 희생과 열정을 아끼지 않은 본당신부님과 신자분들 수고하셨다."라며 "성전건립을 주도하신 하느님께서는 자신의 성화를 이루어가는 교회, 지역민들이 위로받고 용기를 얻는 교회를 원하시니 윤지헌성당으로 불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더욱더 순교자들을 현양하고 본받는 교회로 만들어가자."라고 당부했다.

이정현 신부는 "건축을 추진하면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랑과 관심으로 응원해 준 선후배 사제와 교우분들, 은인들의 도움으로 '손수 마련해 주시는 야훼이레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었다."라며 "기도하는 집을 마련해 주신 하느님과 교우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윤지헌성당 신자들은 2019년 새 성전 부지 매입 후 김장김치, 깻잎김치, 청귤청 등을 판매하고 성전 신축을 위한 묵주기도 150만단 봉헌과 전 신자 성경 이어쓰기를 해 오며 성전신축에 매진해 왔다.

| 오안라(교구 기자단) |



하나투어 미래관광
꿈꾸는 대로, 펼쳐지다!
하나투어 공식인증 예약센터
미래관광 063)285-1365
변효석 루도비코 010.6797.8291

미카엘 여행사 성지순례
25년 1/7 나가사키 4일, 1/13 나트랑.달랏 5일
1/21 태국.파타야 5일, 2/6 스페인.포르투갈 12일
한국성지 35만원부터~, 제주순례 39만원 부터~
정상훈 미카엘 010-8650-9690

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근력향상 위한 놀이 / 재활 물리치료
우울증.치매예방 뇌기능 개선 프로그램
전주노인건강복지센터
홍수현 데레사 010-2655-4222

장문외과
국민건강보험공단 5대암 검진기관
위.대장.항문병 중점, 위.대장 내시경 센터
내과: 나용호 / 외과: 최성양(루카)
834-6000 익산 영등동 육교 옆

양빛나 유외과
유방 갑상선 전문의 · 여성 전문의
원장 양빛나(리나), 이주환(요한)
효자동 홈플러스 맞은편 하나은행 4층
063)228-9336

전주미르치과병원
진료문의 063)224-7700
이선하 크리스티나 정회웅 프란치스코
허선 세라피나 정자실 소화데레사 김동욱 요셉
중화산동 은하아파트 사거리 (백제대로218)

교구 소식

Photo 소식

한국 천주교 주교단 사도좌(교황청) 정기방문 <9월 16일(월)~24일(화)>

진 선 미 꽃 집
전국 꽃배달 서비스
범근배(방지거), 박선자(루시아)
중화산동 빙상경기장~도청사이
063)222-0004 / 010-3678-2628

서울영상의학과 MRI센터·심장센터
최신 AI장착 3.0T 지멘스 MRI 도입
심장초음파CT. 특수촬영
박인숙 아나다시아, 설명진(영상의학과)
김원호 베드로(심장내과) 063)278-1313

문실버요양병원(구, 문병원)
가톨릭 신자 내원 시 우대 혜택
원장 : 문지식 레나도, 기순종 안젤라
위치 : 경원동 KT 사옥 옆
063)282-8833~6/284-2918

서 해 젓 집
국내산 새우젓 및 각종 고급 젓갈류 도·소매
삼천동 농협 공판장 내 위치
염점례 리디야
063)227-8111 / 010-3675-0091

아름다운 김현숙안과
쌍꺼풀수술·상안검성형술·하안검성형술
성형안과 정회원
원장 김현숙 레지나
신시가지 국민은행 5층 063)225-7717

성바오로복지병원
양·한방 협진, 수술 후 회복기, 암 환자
만성질환, 기타 요양이 필요한 질환(면회 가능)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운영
063)249-3300~3302

교구장 일정

- **위령의 날 합동 위령미사**
  11월 2일(토) 오전 10시 자비의 성전
  미사 후 위령기도(성직자 묘지)
- **빛따라 축제 파견미사**
  11월 3일(주일) 오후 3시 30분 교구청

이번 주 교구 행사

- **10월 28일(월)**
  -14차 새만금 생태계복원 기원 월요미사
  (오후 3시 해창 갯벌)
  -전주 사제양성후원회 월례미사
  (오전 10시 30분 교구청)
  -태아 어린이 축복미사
  (오전 11시 자비의 성전)
  -사회복지시설 장기근속자 국내연수(~31일)
- **10월 29일(화)**
  -국내 이주사목 실무자 피정
  (~30일, 꽃동네 사랑의 연수원)
  -군산 사제양성후원회 월례미사
  (오전 10시 30분 나운동)
  -교정사목 정읍 봉사자회
  (오후 4시 20분 연지동)
  -전주가톨릭신학원 특강 6
- **10월 31일(목)**
  -새 사제 연수(오전 10시 교구청)
  -자원봉사자학교(오후 1시 30분 교구청)
  -여성연합회 가을피정
  (오전 9시 개갑장터순교성지)
- **11월 1일(금)**
  -사무장원연합회(오후 5시 30분 교구청)
  -4050 음악기도(오후 8시 유항검관)
- **11월 2일(토)**
  -혼인강좌(오전 9시 40분 평화의 전당)
  -애령회원 피정(~3일, 평화의 전당)
  -레지오마리애 3단계 기사교육
  (~3일, 평화의 전당)
  -하랑봉사단 피정(오후 2시 유항검관)
  -유항검사도회 정례피정
  (~3일, 천호피정의 집)
  -청년성서 전국모임(~3일)
- **11월 3일(주일)**
  -빛따라 축제(오전 10시 교구청)
  -전국추수감사미사 및 도농한마당 잔치
  (명동성당)

교구 내 알림

- **제20회 사회복지후원회원 및 자원봉사자의 날**
  일시 : 11월 5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 평화의 전당 유항검홀
  대상 : 사랑의 다리 후원회원 및
  자원봉사자, 관심 있는 분
  주최 : 전주가톨릭사회복지회
- **천호성지 첫 목요일 성시간 및 특강**
  11월 7일(목) 오전 10시 성시간
  오전 11시 가정미사
  강의 : 오후 1시(참가비 무료)
  "사랑의 기쁨" 해설
- **성모기사회 성모신심미사**
  11월 2일(토) 오전 9시 20분 효자동
  오후 7시-젊은이들을 위한 신심미사
  문의 : 010-8627-5742
-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성소 모임**
  11월 3일(주일) 오후 2시
  장소 : 덕진성당
  문의 : 010-9353-1773(미리 연락)
- **전주 재속전교가르멜 회원 모집**
  전교가르멜수녀회의 은사에 따라
  관상과 활동으로 복음적 삶을
  살고 싶은 평신도
  문의 : 010-3097-7764
- **전주지구 재속프란치스코회 회원 모집**
  성 프란치스코의 영성을 따라 교황청이
  인준한 회칙을 준수하며 사랑의 완덕을
  향하여 나아가려는 재속회로써 견진을
  받은 18세 이상의 교우를 초대합니다.
  문의 : 010-2464-7288
- **2024년 성서주간 말씀 잔치**
  신청기간 : 11월 3일(주일)~24일(주일)
  일정 : 11월 28일(목) 오전 10시
  신청비 : 1인 1만5천원/장소 : 평화의 전당
  문의 : 조 마리시몬 수녀(010-2184-8879)
  신청 : 사목국(230-1059)
- **전주ME 제197차 주말**
  혼인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ME주말
  11월 15일(금)~17일(주일) 평화의 전당
  문의 : 010-5286-9999/010-5238-4014

교구 밖 알림

-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국내 입양 상담**
  문의: 02)764-4741~3
  www.holyfcac.or.kr
- **성삼의 딸들 수녀회 성소 안내**
  일시 : 언제라도 문의 받습니다.
  장소 : 담양군 대전면 대치1길 22-14
  문의 : 061-382-2214/010-7159-9674

군산한우 지 니 한 우
한우 무한리필 / 특수부위
연중무휴 / 기업 단체 회식환영
나운2길38 2층 / 송진희(제노비오)
063.468.2897 / 010.4434.2897

전주항외과(구, 항병원)
치질·하지정맥류·탈장
위대장내시경·국가건강검진
원장: 전문의 전관희(루카), 이관재, 황정환
228-6002 삼천동 세창짜임APT 맞은편

온누리 바른척추&통증관리
목·어깨·팔·허리·다리
척추 골반 통증 및 체형 관리
최민준 시몬 010-3684-5544
효자동 신기독병원 맞은편

2024
청소년 빛따라 축제

* 일시 - 11월 3일 (주일) 10:00~17:00

* 장소 - 천주교 전주교구청

* 프로그램
  - 빛따라 어울림 마당 (부스 프로그램)
  - 빛따라 찬양 나눔
  - 빛따라 축제 미사
    (집전 : 김선태 사도요한 주교님)

*접수마감 : 10월 20일 (주일) 까지

*문의 : 010-5874-2890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마태 5,14)

포스터 제공 | 교구 청소년교육국